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 도 자 료

보도

2020. 11. 19.(목) 조간부터

배포

2020. 11. 18.(수)

책임자

동향분석실
김세중 실장(3775-9059)

작성자

김세중 연구위원(3775-9059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담당역(3775-9115)

총 2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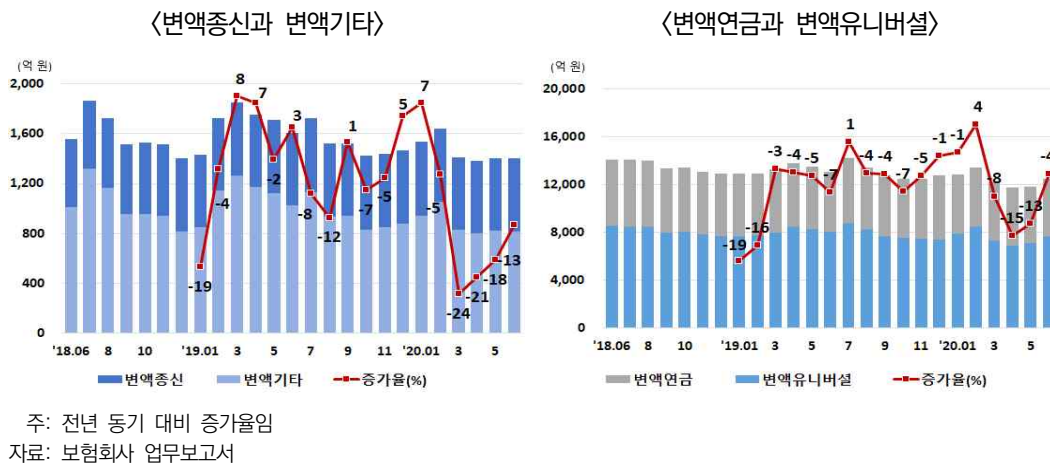
보험연구원, 『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』 CEO Report 발간

“변액보험시장의 지속적인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”

- 보험연구원(원장 안철경)은 주식시장과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는 변액보험의 문제점을 짚은 『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』 보고서를 발간함(CEO Report 2020-9)
- 저금리 환경에서 변액보험시장은 전통형 보험상품의 대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음
-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시중 유동성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
 -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은 2020년 3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신용잔고 또한 증가함
 - 펀드시장 유입액 또한 2020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함
- 그러나 변액보험의 주식시장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주식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판매는 부진한 모습을 보임
 - 변액보험의 2020년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6.9% 감소함
 - 2020년 변액보험 월별 초회보험료는 주식시장이 급반등한 3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함

- 한편 변액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 채널의 변액보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, 이 또한 변액보험 성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임

〈그림〉 변액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



- 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주식시장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하고, 채널 적합성을 고려하여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
 - 보험회사는 소비자 친화적인 수수료 및 상품구조 개발에 힘쓰고 변액보험 상품의 장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음
 - 생명보험회사는 다양한 수수료 구조의 상품을 도입하고, 새로운 보증구조를 도입하거나 전통적 보험상품과의 하이브리드형 상품, 지수연계형 상품 등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임
 - 변액보험의 경우 사기성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가입자의 노후소득과 사망 보장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변액보험을 고위험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

첨부 : CEO Report 『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』